

추석 황금연휴 여수에 68만명 발길… 전년보다 2.6배 ↑

향일암·케이블카 등 7·8일 집중…숙박시설 평균 투숙률 69.7%
시, 종합상황실 운영·관광안내소·교통대책반 등 가동 편의 제공

추석 연휴 포함 지난 10일간(3~12일)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68만 4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여수 방문객 수인 26만명 대비 약 2.6배 증가한 수치로, 대표 관광도시로서 여수의 높은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추석 당일 직후인 7일과 8일 양일간 방문객이 집중됐으며 주요 숙박시설의 평균 투숙률은 69.7%로 연휴 초반부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선선한 가을 날씨 가운데 오동도와 여수세계박람회장, 향일암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는 방문객의 발길이 활발히 이어졌으며 케이블카, 예술랜드 등 체험형 관광시설에도 가족 단위 관광객이 몰리며 활기를 더했다. 여수시는 연휴 기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관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안내소와 교통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동백 무비 나이트’, ‘캔들라이트 콘서트’ 등 다양한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여수를 방문한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여수의 매력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의 위상을 더욱 높ی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추석 연휴를 포함해 지난 3일부터 10일간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보다 2.6배 늘어난 68만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순천시, 세계자연보전총회서 ‘존재감’

IUCN 고위급 회담 참석·MOU 체결 등 국제 교류 확대



순천시와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주가 지난 10일 ‘생태문명 전환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시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IUCN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와 교류를 확대하며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순천시는 “정책과 자본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시대에 자연과 그 관리자들은 기후위기의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IUCN 고위급 회담에 초청되어 세계 각국의 정부 관계자, 과학자, 지방정부 대표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회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순천만 복원과 흑두루미 보호를 위한 전봇대 철거, 국가정원 및 오전그린광장 조성 사례 등을 소개하며 순천이 자연기반해법(NbS)을 실천한 대표 도시임을 강조했다. 특히 순천시는 IUCN 신규 회원 도시로서 참석

자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으며, IUCN 라잔 칼리파 알 무라바크 회장, 그레텔 아길라르 사무총장 등과 소통하며 향후 협력 및 국제 교류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순천시가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생태도시임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IUCN과의 협력 등 국제적 역할을 통해 순천의 비전이 세계의 의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0일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주(Cross River State)와 ‘생태문명 전환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산림·습지 보전, 기후적응, 시민참여형 생태문화 프로그램 등 아시아-아프리카 지방정부 간 생태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정신건강 문제 나누고 예방 교육

24일까지 ‘정신건강 홍보주간’…마음 돌봄 자가검진 이벤트 등

여수시가 정신건강의 날(10월10일)을 기념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25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주간은 ‘마주해요: 정신건강은 마주하면서 시작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정신건강 문제를 함께 나누고 조기 상담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행사로는 제4회 마음 나누기 커피차 운영 ‘따뜻한잔, 마음 두 스푼’이 있다. 행사는 ▲14일 시청 국동 임시별관 ▲21일 여수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오전 8시부터 진행되며 담배를 지참한 시민에게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마음 돌봄 자가검진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행사기간 중 여수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https://www.061mind.or.kr/yeosu)에서 우울증 자가검진에 참여하면 자동 응모되며 이벤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이밖에도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송출, 포스터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조성면 경로당 47곳 ‘클린방역’

보성군이 지난 3일부터 8일간 조성면 4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클린 방역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 이용 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다. 특히, 조성면희망드림협의회와 조성면의용소방대가 협업을 추진하며, 행정과 지역 단체가 힘을 모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현장 서비스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여자들은 각 경로당의 내부 청소, 해충방제, 소독 등 위생 통합방제 서비스를 펼쳤다. 또한, 고령자 이용이 잦은 휴게공간, 주방, 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위생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환경을 마련했다. 조성면 희망드림협의회 전병현 회장은 “이번 방역·정결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만들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도예가 황선희 작가, 고흥분청사기 공모전 대상

‘매화 만개 꽃피우는 집’ 수상
우수작 30점 총 상금 3800만원

도예가 황선희 작가의 ‘매화 만개 꽃피우는 집’이 고흥분청사기 공모전 대상을 차지했다. 고흥군은 지난 10일 제8회 고흥분청사기 전국 공모전 수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 속 기억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지난 4월 14일 공고 후 전국 각지에서 총 71점의 수준 높은 분청사기 작품이 접수됐다. 출품작들은 고흥 도자문화의 전통성과 현대적인 미감을 조화롭게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대상, 최우수상 등 총 30점이 엄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작품으로 선정됐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2점에는 국가유산청장상과 각 600만원, 우수상 3점에는 도지사상과 각 400만원이 수여된다. 전체 상금 규모는 3800만원이다. 대상은 경상남도 진주에서 활동 중인 도예가 황선희 작가의 ‘매화 만개 꽃피우는 집’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매화가 만개한 봄날의 감동을 전통 분청 기법과 현대적 조형미로 조화롭게 표현한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작품성과 주제 전달력 모두에서 높



제8회 고흥분청사기 전국 공모전에서 황선희 작가의 ‘매화 만개 꽃피우는 집’이 대상을 수상했다.

은 평가를 받았다. 분청문화박물관 관계자는 “고흥은 분청사기의 본고장으로서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현대 도예 문화와의 접점을 모색하고자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예 인재 발굴과 도자 문화의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며, 수상작은

시상식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전시실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고흥분청사기 전국 공모전은 2018년 처음 개최된 이래 8회째 이어지고 있으며, 매회 창작성과 작품성이 뛰어난 우수작품 출품으로 전국 규모의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곡성 동화정원서 ‘시월愛 어느 멋진 날’ 18~19일 가을 음악회

곡성군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황화코스모스가 만개한 동화정원에서 가을 음악회 ‘시월愛 어느 멋진 날’을 개최한다. 올해 초 유채꽃이 만발했던 동화정원에서 이미 봄의 향기를 가득 담은 음악회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가을의 주인공 황화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핀 공간에서, 다시 한번 계절의 낭만을 음악과 함께 전할 예정이다. 음악회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자연과 음악, 체험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족, 연인, 친구 등 누구와 함께해도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자리로 기대를 모은다. 공연은 총 3팀이 무대에 오른다. 섬세한 선율로 가을의 분위기를 더할 전자현악듀오를 시작으로, ‘미스트롯’과 ‘골 때리는 그녀들’ 등에 출연하며 국내 팬들에게 친숙한 스페인 출신 아티스트 라라 베니토가 감미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깊고 풍부한 음색으로 사랑받는 팼페라 그룹 레디스가 웅장한 하모니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공연과 함께 다양한 가을 감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화분 만들기, 배스밤·갓 기림·전통 노래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가을음악회가 열릴 예정인 곡성 동화정원.

등 케데한 굿즈 만들기, 걱정이 인형과 비즈로 꾸미는 플라워 소품 만들기 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캐리커처 체험과 로즈케피, 꽃차 시음 코너도 운영된다.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되며, 사전 신청(https://naver.me/5u9GHqLZ)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 내에는 SNS 인증 이벤

트 부스와 보물찾기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기차마을·동화정원 간 셔틀버스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시로 운행된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고흥 밤하늘 수 놓은 1500대 드론

추석 녹동항 드론쇼 특별공연 5만5000여명 방문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녹동항 바다정원 일원에서 열렸던 ‘추석맞이 녹동항 드론쇼 특별공연’에 약 5만 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번 드론쇼는 ▲달빛미슬관(민화편) ▲달토끼와 함께하는 추석 ▲고흥, 가을 나들이라는 주제로 연휴 기간 3일(4·6·7일)간 개최됐다. 추석 당

일에는 1500대 규모의 드론이 고흥의 밤하늘을 수놓았으며, 멀티미디어 해상불꽃쇼도 함께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환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다. 연휴 기간 녹동항 일원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으며, 주변 숙박업소와 음식점 이용객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

었다. 특히, 군은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하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공연민 고흥군수는 “이번 드론쇼가 명절 기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 야간 콘텐츠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드론과 우주항공산업을 결합한 고흥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